코오롱-효성, 화학섬유 사업 “적자”

원료가격 오르는 반면 판매가격은 하락 ... 경영목표 수정 전전긍긍

화학섬유를 포함한 섬유업계 전반에 원료가격 급등과 판매가격 하락, 내수부진 등 각종 악재가 지속되면서 적자를 내는 화섬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코오롱은 2003년 2/4분기 5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된 데 이어 3/4분기에도 12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손실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년대비 영업이익 감소폭도 1/4분기 31.9%, 2/4분기 43.4%, 3/4분기 93.9%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매출액도 3/4분기 들어 2.6%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오롱은 “판매가격 하락, 원료가격 급등 등으로 원사부문의 적자규모가 불어나면서 전체 경영실적도 적자를 기록했으며, 4/4분기에도 원사부문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2003년 들어 3/4분기까지 영업이익 398억원, 경상적자 89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03년 영업이익 1133억원, 경상이익 380억원을 달성하려던 당초 목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성은 중공업, 화학 등 섬유부문 이외의 실적에 힘입어 회사 전체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합성섬유 등 섬유부문에서는 3/4분기 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 전 부문에서 2/4분기와 3/4분기 각각 756억원, 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동기대비 이익 감소폭이 21.9%, 35.2%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효성은 2003년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3/4분기까지 누계실적이 매출액 3조1530억원, 영업이익 198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2003년 매출액 4조1000억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올린다는 당초 목표의 80% 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3/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5.5% 감소했으며 대구 오페라하우스 기부로 394억원의 영업외 비용이 발생하면서 경상손실 100억원, 순손실 70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제일모직은 상반기 SARS로 인한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을 감안해 2003년 매출액 2조1700억원, 영업이익 2080억원, 경상이익 22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각각 2조1200억원, 2170억원, 15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3/11/19>